

2008 새내기를 위한

추천도서 모음집



004 발간사

006 단체 추천도서 5권 모음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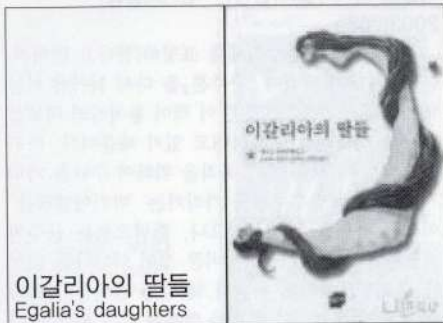
- 008 노수석 생활도서관
침묵과 영광/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바리데기/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 010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공산당선언/파시즘/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좌/학벌사회
- 012 언론출판협의회
네 멋대로 써라/군주론/통치론/세계사 편력/살아남은 자의 슬픔
- 014 총여학생회
이갈리아의 딸들/오늘도 난, 외출한다/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행복한 페미니즘/페미니즘의 도전/성폭력을 다시 쓴다/노동과 페미니즘/Is It a Choice?/다이어트의 성정치/네서널리즘과 젠더

Part 2

018 자치단체 서평집

- 020 교육대
[돋움] 만들어진 성에 대한 도전 -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배움누리] 20대, 피터팬의 비극 - 88만원 세대
[지여인] 일본인, 서구 근대를 번역하다 - 번역과 일본의 근대
- 030 문과대
[아벨] 새 잎을 틔우려는 나무에게 띄우는 엽서 - 나무야 나무야
[진동] '관계' 에 대한 소고(小考) - 사랑해야 하는 딸들
- 036 법학대
[법사회학회] 흡스의 리바이어던에 관하여 - 리바이어던
- 040 사과대
[정연희] 어쩌면 당신도 반자본주의자 입니다 - 반자본주의
[여객동무] 고통을 공유하며 - 집으로 가는 길
- 047 상경대
[파란] 자유무역의 환상을 깨라 -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누리] 자유와 민주주의, 그 미묘한 관계에 대한 한 가지 의심 - 자유의 미래
[뿌리] 여럿이 함께
- 055 신과대
[물구나무]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 058 의과대
[심지] 가서 살육하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 국민이라는 노예
- 060 언론사
[상경논총] 냉철한 이성, 따뜻한 가슴으로 - 애덜 스미스 구하기
[연세교육방송국]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서 - 어린 왕자
[연세통] 환경 문제에 숨겨진, 조금 더 불편한 진실 - 자연과 타협하기
[연세편집위원회] 당신의 상식을 develop하라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불안극복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 사회학적 상상력
- 074 기타 단체
[살맛] 노동운동, 믿습니까?! -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총여학생회] 다양한 여성들의 별별 이야기 - 언니네 방

「총여학생회」 새내기 추천도서



게르드 브란튼베르그히스테리아 역|황금가지
|2000.08.01|354p

낮익은 것의 낯설게 하기 - 성별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여성과 권력이 없는 남성을 상상하고 쓴 이 소설은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완전히 바뀐 '이갈리아'라는 가상의 공간을 무대로 한다. 그렇다면 이 글은 억압받아왔던 여성들에게 통쾌함을 느끼게 해줄까? 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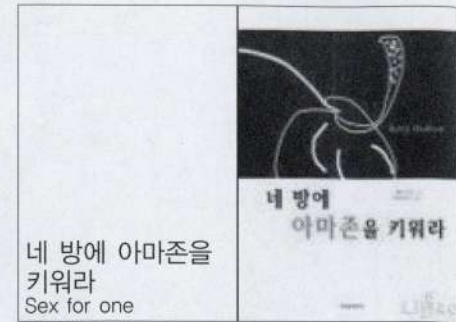
벨 훅스|박정애 역|백년글사랑|2002.10.31|254p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페미니즘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 - 저자는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적 지배와 억압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 정의한다.



행복한 페미니즘
(The)way to write for children

베티 도슨|곽라분이 역|현실문화연구
|2001.11.15|2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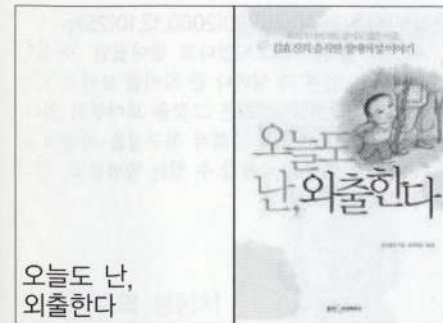
행동하는 여성학자 베티 도슨의 '자위 행위'에 대한 고전적 저서. 그녀는 꾸준히 자위 행위와 여성의 성적 권리를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왔다.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
Sex for one

장차현실 역|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2006.04.01|256p

이 책은 갈음, 다름, 소통, 시선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여성인 작가는 이 이야기들을 스스로의 삶을 토대로 풀어간다. 얼핏 보면 따뜻한 문체의 수필집 같지만,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된 이 사회를 향해 외치는 것으로 들린다. 이 책은 이처럼 사회의 시선을 통해 본 장애여성의 삶이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장애여성의 시선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뒤덮인 이 사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렇게 사회를 향해, 일상을 향해 '외출' 하는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는 중간 중간에 있는 장차현실의 짧은 만화에서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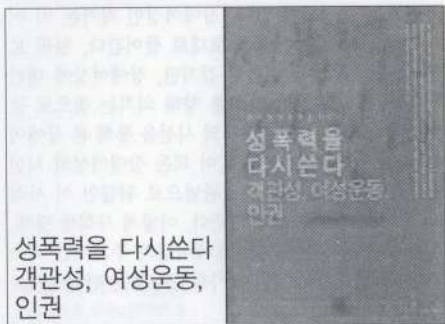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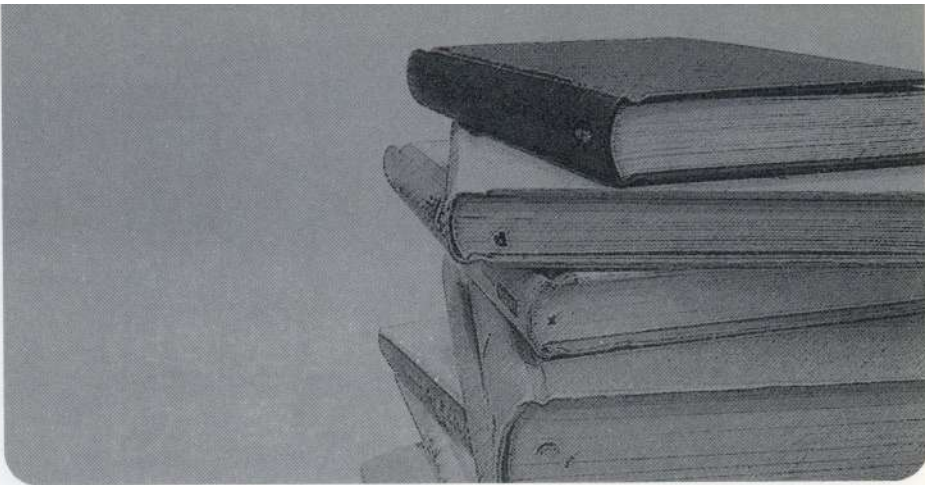
오늘도 난,
외출한다

정희진|교양인|2005.11.07|290p

우리가 객관과 정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이데올로기일 뿐이었다는 것을 저자는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로 풀어나가고 있다. 여성, 장애인, 유색인종,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 속에서 남성 중심적인 세계를 해체하고 재구성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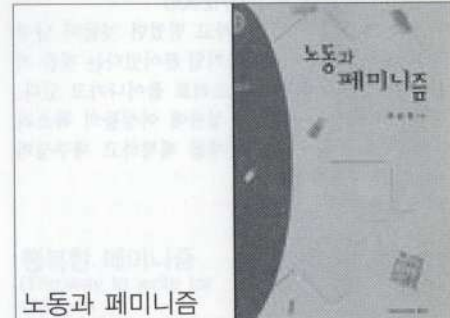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편집부|한울(한울아카데미)|2003.12.10|257p
투쟁의 결과로 확보되었다고 믿어졌던 '여성인권'이 아직 '인권'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고통스럽지만, 이책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 개념의 사회적 허구성을 파헤치고, 이와 더불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한다.



조순경|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06.10|350p
여성 노동에 대한 연구 논문집이다. 1부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해 고찰하면서 여성노동의 일부분을 배제하는 기존의 노동개념을 해체하고 2부에서는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평등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3부에서는 '숙련'의 의미 정의와 노동시장의 구성의 성 불평등을 드러내고 4부에서는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국가정책 등 조직과 제도 내 가부장성을 밝히고 있다.



예릭 마커스|컴투게더 역|박영출판사
|2006.07.15|304p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갖는 편견을 문답 형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책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의 이성애 중심적 고정관념을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한다. 연세대학교 이반 공동체 Come Together에서 2000년도에 번역하고, 2006년도에 커밍아웃과 가족 등 각각의 장마다 미국과 다른 한국의 동성애자들의 현재에 대하여 새로 썼다.



한서설|책세상|2000.08.01|167p
다이어트로 대표되는 여성들의 '외모 관리'에 대한 분석. 그동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던 여성의 몸,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과 분열을 사회적,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나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즉, 개인의 선택이라고 여겨지던 '다이어트'가 사회적으로 강제된 규율이자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밝힌다.

우에노 치즈코|이선이 역|박종철출판사
|1999.12.01|279p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회학적 의미를 찾아내고, 그 속에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밝혀낸 책이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루면서 저자는 이 문제가 민족 모순이나 성 모순이라는 식의 논쟁 구도 자체를 비판한다. 오히려 전쟁 시 집단 성폭력 같은 비극이 인류사에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대안일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다양한 여성들의 별별 이야기

언니네 방 (내가 혼자 아님 그 곳) 언니네 사람들 | 갤러리온 | 2006.03.27 | 231p

-총여학생회

문득 처음 내 방을 갖게 되었던 시절을 떠올려본다. 부모님과 함께 자는 것이 마냥 좋았던 어린 시절의 나는 깡그리 잊어버린 채, 혼자만의 방을 가졌다는 기쁨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하지만 엄마는 종종 내 방에 들어와 내가 잘 있는지(?) 확인하셨다. 딱히 혼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의 갑작스런 방문에 나는 괜스레 흠칫 놀라기도 했다. 혹여 나의 방문을 잠그는 순간엔 엄마는 놀라 문을 두드리기 일쑤였다. 물리적인 나의 공간이 생기긴 했지만, 분명 그 방은 나만의 오롯한 방은 아니었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글을 쓴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성이 누군가의 시선과 잣대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 했을 때, 그 경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쉽게 말해 한 여성이 "오늘은 나를 위해 화장을 했어."라고 말하더라도, 결국 그 화장이라는 행위는 누군가에게(특히 이성애중심주의사회에서는 남성에게) 관심을 받기 위함으로 의미가 왜곡된다. 즉, 누군가의 구애도 받지 않는 자기만의 방을 가지지 않고서는 여성 자신의 경험을 털어 놓긴 힘들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언니네' (www.unninet.net)에는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자신만의 언어로 써내려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다. 이곳에서는 관계 맺기, 연애, 섹스, 치한을 무찌른 무용담(!)까지 다양한 여성들의 별별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피어난다. 하나 둘 글이 올라오면 언니들의 공감, 지지, 감동과 함께 리플이 주루룩 달린다. 이렇게 수많은 지지를 받은 언니들의 경험들을 엮어 만든 책이 바로 <언니네 방>이다.

이 책 안에는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과, 그동안 자신을 억압해왔던 남성들에게 던지는 말, 여자로서 용감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리고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있는 언니들의 팁이 담겨있다. 가벼운 수필을 읽듯 편안하게 읽어가면서 느끼는 오만가지 감정들은 - "나

도 이런 적 있어!"라고 맞장구를 치는 공감과, 글 속의 언니에게 마음껏 지지의 빔을 쏘주고 싶은 감정들 -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누구의 해석도 거치지 않고, 자신만의 경험으로 말해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걸림돌 투성이다. 그렇다고 수많은 불평을 토로하자면, "여자가 연성을 높인다"고 화살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언니네 방>에서는 그러한 화살 따윈 저 멀리 우주로 보내버려도 좋다. 엄청 '말 많은 여자들'의 무한 수다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언니네 방>이다. 우선 이 방에 들어간다면 책 뒤편의 추천사처럼 그녀들의 언어에 감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방을 나올 땐 자신의 경험이 자기만의 온전한 경험,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 많은 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말이고, 누군가에게는 막연한 거부감을 주는 말이며,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향성을 제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성주의는 성을 매개로 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가치관입니다. 가부장제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성을 매개로 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 체제를 일컫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이며 학내 공간 또한 그 가부장성에서 벗어나있지 않습니다. 강의실, 반방과 동아리방, 새터/OT 등의 학내 생활공간에서 매해 끊이지 않는 성폭력 사건과 '연세인'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여성배제적인 운동경기 등의 학내 행사들, 남성성을 강조해야하는 응원과 FM은 물론, 학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동성애혐오 발언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 등은 가부장성이 우리의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학생 대표기구로서의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삶 곳곳에 스며있는 권력관계를 성찰하고 그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함으로써, 여학생 교육권을 확보하고 여성배제적인 일상을 문제삼는 등, 우리의 생활공간인 학내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는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를 그 기조로 하여 여성주의적인 일상을 만들고, 생활공간에서 여성주의가 이야기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의식을 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리라 믿으며, 여성주의가 생활공동체와 맞닿는 지점에서 다양하고 즐거운 언어로 긴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